

GLOCALISM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Empowering Sustainabl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Administration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오세훈의 지방시대
서울특별시장

2024. 03 | Vol. 115 월간 지방시대

MAGAZINE

GLOCALISM



오세훈의 지방시대
서울특별시장

01

오세훈의 지방시대

지방시대는 지역만의 창의적 방식으로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동기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절체절명의 행정 패러다임이다.

07

서울특별시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

- 09. 「기후동행카드」 출시
- 10. 「서울안심소득」시범사업
- 11. 교육복지 플랫폼「서울런」
- 12. 서울의 핵심 매력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 13. 新정비방식「모아주택·모아타운」

15

서울특별시 주요 정보

- 17. 문화 행사, 축제
- 21. 지역정보



25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서울특별시 편

로드시스템 장양호 대표

33

지방시대, 일본 편

- 35. 오사카부 다이토시(大阪府大東市)
- 38. 가고시마현 가노야시(鹿児島県鹿屋市)

41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

2024년 중앙정부 정책방향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II



“

지방시대는
지역만의 창의적 방식으로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동기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절체절명의 행정
패러다임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의 지방시대

지방시대는 지역만의 창의적 방식으로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동기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절체절명의 행정 패러다임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꿈꾸는 지방시대는 시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고, 더 나아가 초저출생으로 인해 국가 소멸의 위기까지 직면하고 있다.

서울 역시 국가의 수도이자 중추기능의 집적지로서 성장 우선 정책을 펼쳐왔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경쟁력을 향상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민선 8기 서울시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이라는 시정 슬로건 아래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소외계층과 위기에 취약한 분들의 어려움을 덜고,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고,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글로벌 매력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서울의 발전을 넘어 수도권의 광역적 협력을 통해 공동 현안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민선 8기 서울시정의 양대 축인 '동행', '매력' 정책은 잘 물린 톱니바퀴처럼 힘차게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약자를 보듬고 응원하는 '동행특별시 서울'

한국 사회가 '성장'을 넘어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대물림을 끊어낼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민선8기 서울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모아타운과 같은 주택 정책을 통해 주택공급을 정상화하는 한편, 고품질 임대주택, 청년 안심주택을 공급하고 반지하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이주도 지원하고 있다.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을 도입하고, 계층이동 사다리의 핵심인 '서울린'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돕고 있다. 또한, 맞춤형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건강증진사업으로 금년까지 누적가입자를 1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살기 좋고 매력이 넘치는 펀시티(Fun City)

서울시는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강과 남산은 서울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바뀌고 있고 2022년 재조성된 광화문광장은 대규모 축제와 휴식이 어우러진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가 되었다. 여기에 한강페스티벌, 서울썸머비치,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등 4계절 내내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도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심·수변 등 도시공간을 대개조해서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늘리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작년 3월에 개장한 '홍제천 수변 테라스 카페'는 매달 5만명의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올해도 세곡천, 도림천, 불광천 등 8곳에 수변활력 거점 공간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될 첨단·창조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서울시는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의 잠재력과 강점을 바탕으로 한 DMC역 철도역사 복합개발, G밸리 ICT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창동·상계 일대 동북권역 중심도시 육성, 잠실 스포츠·MICE 복합개발 등을 비롯해서 디지털미디어(상암), R&D(마곡), 바이오(홍릉), 금융·핀테크(여의도) 등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오는 4월에는 동대문구에 '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개관하고, 5월에는 인공지능 전문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하는 '서울 AI 허브'도 서초구에 문을 열 예정이다. 이어서 7월에는 도봉구에 로봇인공지능과학관도 개관한다. 이와 함께 서울을 '글로벌 E스포츠 중추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매년 「서울 E스포츠 위크」를 개최하고, DMC 에스플렉스센터를 「게임콘텐츠 창조 허브」로 재조성해서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의 미래, 아이가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

2023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초저출생의 시대에 '아이를 낳기만 하면 함께 키워드리겠다'는 특단의 각오로 서울시는 2022년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올해는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라는 새 이름과 함께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엄마아빠 택시', '서울형



키즈카페', 안심 돌봄을 위한 '주말어린이집'과 같은 사업은 이미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49세 여성 650명에게 난자동결 시술비(1인당 최대 20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은 서울의 현재이자 미래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꿈을 지켜주기 위해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개관하고, 청년일자리센터, 캠퍼스타운 사업 등을 통해 취업과 창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마음이 힘든 '고립·은둔청년',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가족돌봄청년', 시설을 떠나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 주도의 정책 추진을 통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초저출생과 인구소멸, 글로벌 인재와 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지역이 갖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재분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앞당기고 지역 실정에 맞는 혁신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에 이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각종 중앙정부의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발전과 투자를 막고 있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개선해야 한다. 지방 소멸의 해법이 수도권 내 행위와 총량을 제한하고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는 이분법적 형태로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책임질 미래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서울이 글로벌 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지방과의 상생노력을 통해 위기 극복에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약자와의 동행
확대·발전,
매력도시 서울
본격 실현

서울특별시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

「기후동행카드」 출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
서울의 핵심 매력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新정비방식 「모아주택·모아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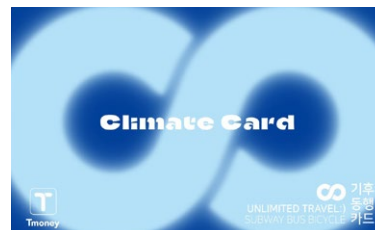
친환경 교통복지... 월 6만 5천원으로 무제한 이용가능한 「기후동행카드」 출시



지난 1월 말 런칭한 오세훈표 히트상품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원(타름이 제외시 6만 2천원)으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공공자전거 타름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카드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하는 경험을 통해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편익을 체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작은 보탬을 준다는 만족감도 경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패러다임을 선보인 것. '기후동행카드'의 인기는 시행 첫날부터 실감할 수 있었다. 시행 첫날인 1월 27일 약 10만 명이 사용을 시작한 이후로, 30일 만에 누적 46만 장이 판매(모바일 15만 8천, 실물 30만 4천), 하루 이용자가 31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 인기 비결을 "많이 쓰는 분이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정책상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교통체제로의 전환 및 적극적 교통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교통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출퇴근 교통비가 생계와 직결되는 직장인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영업직, 대학생, 소상공인 등에게 요금인상분만큼 교통복지로 돌려주자는 것. 그 결과물인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의 대표적 교통수단을 추가금액 없이 갈아탈 수 있어 교통약자에 단비같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승용차로 출퇴근하거나 주말 외출시 승용차를 이용했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연간 약 1만 3천대의 승용차 이용 감소가 예상돼 연간 약 3만 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사업과 더불어 '정원도시 서울', '손목닥터9988'까지 정책을



더 폭넓고, 더 두텁게 지원... 노벨상 수상자도 극찬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유기적으로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민의 핫아이템으로 '기후동행카드'는 계속 진화할 예정이다. 4월 이후에는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 충전 방식도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고, 10월에는 한강 리버버스가 추가되어 더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며, 서울을 넘어 인천, 김포, 군포, 과천 등 수도권 주민들도 '기후동행카드'로 지하철 등을 탈 수 있게 돼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서울로 출근하는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이라 강조하는 오 시장의 진심과 의지가 확산 돼 앞으로 더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서울시민과 수도권 시민이 함께 누리고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탄, 3탄의 정책도 기대해본다.



"서울시 안심소득의 경우 굉장히 투명하고 명확하고 간단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제가 만약 사업을 설계했다면 이와 비슷하게 했을 것이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MIT교수의 국내 최초 소득보장 정책 실험인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한 평가다.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실험인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복잡한 신청 절차, 재산의 소득 환산, 근로 불가 입증 등 복지 수급의 문턱이 높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안심소득'은 간편한 선정 절차는 기본이고, 기준 소득을 넘어도 현행복지제도와는 달리 수급자격 박탈이 없어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실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적정소득을 지급해 더 촘촘히 보호해주는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대안적 복지제도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최초 지급 후 6개월간의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중간 성적표가 공개됐다. 안심소득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한 덕분에 484가구 중 104가구(21.8%)의 소득이 증가했고 늘어난 근로소득으로 인해 비교집단과 대비해 음식, 의료서비스, 교통비 등 필수지출 항목이 늘었다. 또한 자존감은 높아지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등 정신건강도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분석 자료를 본 뒤플로 교수는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족돌봄청(소)년' 과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추가 선정해 4월부터 1년간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소외된 사각지대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수급 자격 탈락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교육사다리 복원 정책,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계층 이동사다리 복원의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서울런(Seoul Learn)' 또한 서울시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오세훈 시장은 "성실히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서울런을 통해 단 한사람의 인생이라도,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결정하고, 이것이 사회경제적 지위로까지 이어지며 빈곤이 대물림되는 불합리한

서울의 핵심 매력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으로 글로벌 Top 5 도시 진입



서울시는 2007년 '회복과 창조'라는 기조하에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했다. 이로 인해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인공호안은 자연호안으로 바뀌었고, 여의도공원의 3배가 넘는 크기의 습지와 생태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이 손쉽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종 수생식물과 어류의 종류가 늘었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이 출현할 정도로 한강이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한강은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 먹거리 핵심이자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고의 매력요소다. 이러한 한강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서울의 글로벌 Top 5 도시 진입에 큰 역할을 할 한강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매력도시 서울 본격 실현을 위한 핵심 마스터플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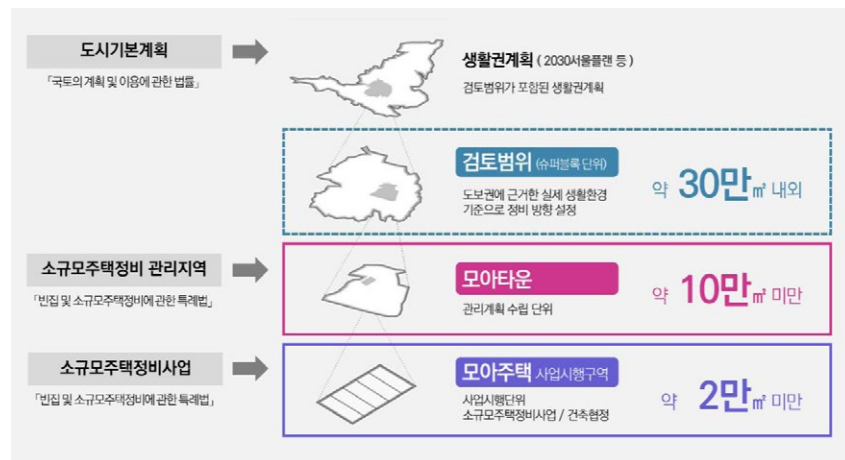
한강은 최대 강폭이 1.2km로 센강, 템즈강의 5~6배며, 길이 41.5km로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또한 많은 시민의 일상과 연결된 가장 잠재력 있는 공공 공간이기도 하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강의 자연생태는 보호하면서도 한강의 편의성과 매력을 더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수변의 활력을 서울 전체로 확장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4대 핵심전략은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을 만드는 것.

먼저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은 자연형 호안 100% 복원(작년까지 82%달성)조성 및 ‘한강숲 조성’, ‘한강생태공원 정비’ 등이 있다. ‘이동이 편리한 한강’은 누구나 10분 내 한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들목과 엘리베이터, 뒷개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보행 접근시설 및 다양한 수상교통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여의도에서 한강 물길을 따라 인천항까지 배로 이동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서울항’을 조성한다. 서울항을 중심으로 크루즈, 대형선박 등이 인천 연안으로 가고, 나아가 중국 등 동북아 해양관광을 선도할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단계적으로 서울항을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新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에서 리버버스 시대가 개막한다.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단 30분이 소요되는 리버버스는, 향후 교통체증 없고 쾌적한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력이 가득한 한강’은 한강변의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감성 조망명소를 확대하고 사계절 내내 문화·예술 축제가 넘치는 한강 조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대관람차 ‘서울링’, 365일 음악이 흐르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여의도 공원에 건립예정인 ‘제2세종문화회관’이 대표 사례다. 마지막으로 ‘활력을 더하는 한강’을 통해 한강변에 자유로운 도시계획 체계를 적용하고 리듬감 있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도시 활력을 끌어올리고 한강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갈 예정이다.

新정비방식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지난 10여년간 서울의 주택공급은 말 그대로 암흑기였다. 이로 인해 셀 수 없는 ‘나의 해방일지’ 희생자가 생겼고 수도권 교통대란 또한 심해졌다. 이러한 불안정한 주택시장에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해결책을 적용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이 바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지난해 12월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대상지 중 한곳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먼저 ‘모아주택’은 도심 특성상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고 절차적으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개념이다.

올해 모아타운 1호 대상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5곳)이 첫 삽을 뜨고 모아타운이 아닌 지역 중 광진구 자양동 모아주택(1곳)도 2월말 첫 삽을 뜨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선정된 ‘모아주택’ 123곳, ‘모아타운’ 85곳에 대한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2026년까지 모아타운 100개소를 지정해 모아주택 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이 뜻을 모아 모아주택·타운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동행·매력
특별서울

문화, 관광,
휴식이 있는
편 시티(Fun city)
서울

서울특별시 주요정보

15년만에 새단장 서울 캐릭터 '해치'
그리고 해치의 소울프렌즈와 함께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힙'한 서울을 방문해
'매력가득한 지금의 서울'을 느껴보세요.

동해·매력
특별시 서울

SEOUL
MY SOUL

반가워요!
HECHI
& SOUL FRIENDS



문화 행사, 축제

연결과 확장의 공간 세계 최초 Outdoor Library, 「서울야외도서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이 있다. 바로 세계 최초 건물없는 친환경도서관 (Buildingless Library) 서울야외도서관이 바로 그 주인공. 지난해 160만명(8개월)이 찾은 ‘책 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은 이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가 됐다.

야외도서관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오랜만에 하늘도 보고, 책도 봤습니다”라는 후기를 남기며 도심 속에서 제대로된 북크닉(book+picnic)을 즐기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야외도서관은 93.4%라는 높은 시민 만족도는 물론 81.6%의 이용자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되기도 했고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혁신적인 모델로 인정받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관하는 친환경 도서관(Green Library) 국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등재되는 등 국내외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야외도서관이 시민들을 독서로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야외도서관에서 1권 이상 책을 읽은 독서자 비율은 83.5%로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1년에 책을 1권 이상 읽은 성인이 47.5%에 불과한 것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서울야외도서관의 미반납률은 0.71%, 대여 물품 분실률·쓰레기 배출률은 0%일 정도로 모범적인 시민의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4월, 다시 운영을 시작할 서울야외도서관은 이전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 혹서기 야간운영을 확대해 연중 중단없이 도서관을 열어 시민에게 독서공간은 물론 휴식과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안한

01

01. 서울야외도서관

분위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과 한국을 알리는 책들도 다양 비치해 관광객들의 발길도 끌고 다양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서울야외도서관을, 서울을 찾은 관광객이 꼭 들러야 하는 ‘문화 맛집’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세상에 없던 빛으로 서울의 밤을 물들인 「서울윈터페스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38일간 서울 대표 매력포인트 7곳(동대문디자인플라자~보신각~세종대로~광화문광장~열린송현녹지광장~청계천~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서울윈타 2023>은 서울을 대표하는 초대형 도심 겨울 축제다. 봄~가을에 비해 행사가 많지 않아 볼거리가 적다는 서울의 겨울 이미지를 벗고 연말연시에 세계인이 찾아오는 ‘겨울 축제의 도시’로 거듭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38일간 <서울윈타>에는 무려 740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또한 온라인에 업로드된 축제 관련 영상도 3억 7,000뷰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인이 함께 즐긴 축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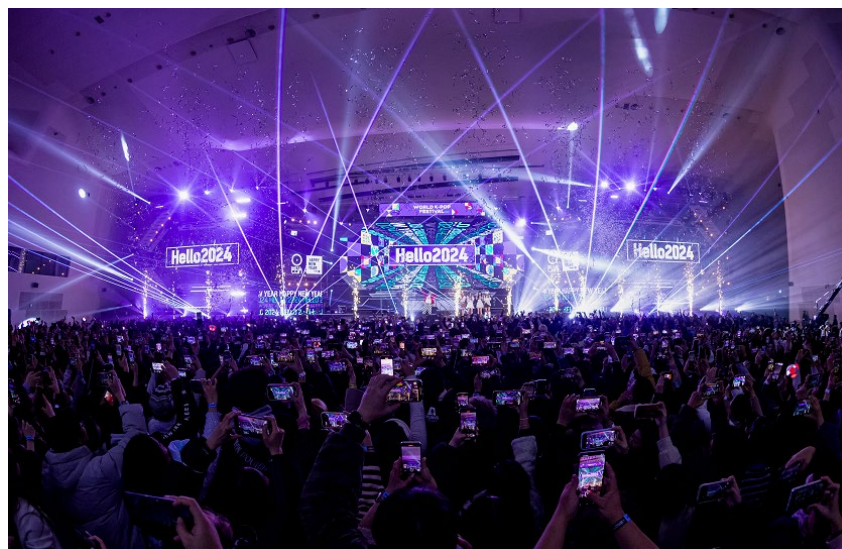
‘빛’을 모티브로 한 다채로운 미디어아트와 전시를 선보이며 도심의 겨울밤을 화려한 빛으로 물들였던 ‘서울윈타 2023’은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미국 CNN, 중국 CCTV 등은 보신각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카운트다운 행사를 생중계하며 서울의 새해맞이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서울윈타>는 글로벌 문화발신지 서울의 위상을 알리고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행사를 하나의 주제로 통합하는 ‘초대형 축제’의 확장성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였으며, 이 의미있는 시작을 발판 삼아 앞으로 ‘서울윈타’를 ‘세계인이 즐기는 겨울 축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01

01. 서울윈터페스타

세계 최초+최대 인플루언서 박람회 '서울콘'



2024년 1월 1일 0시, 전세계 58개국 3,100여명의 인플루언서가 서울 DDP(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 모여 “해피 뉴이어”를 외치며 새해를 맞이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서울콘’은 서울의 문화, 산업, 뷰티·패션 등의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을 글로벌하게 확산하기 위한 세계 최초 인플루언서 박람회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일 새벽까지 서울 DDP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콘의 목적은 서울의 팬덤을 확장해 세계적인 미디어·콘텐츠 성지로 만드는 것. 이번 첫 서울콘의 성공적인 개최로 콘텐츠, 뷰티, 패션 등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됐다.

서울콘에 참여한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은 문화, 관광, 장소, 먹거리 등 서울의 멋과 매력을 세계로 전파했고 수천, 수억의 세계 10~20대 소비자들은 2023 서울콘에 온 인플루언서들이 서울을 즐기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지켜봤다. 실제로 서울콘 기간 중 펼쳐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에는 약 10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서울콘 관련 SNS 콘텐츠의 조회수 합계는 4억뷰에 육박했다.

올해 연말에도 ‘서울콘’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콘텐츠, 뷰티, 패션 등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알려 K-콘텐츠 해외 진출과 그에 따른 서울 제품·기술의 해외 수출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K-패션 글로벌 플랫폼, 「서울패션위크」

서울시는 올해 가을~겨울 패션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2024 F/W 서울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를 2월 1일(목)부터 5일(월)까지 5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성수 에스팩토리에서 열렸다. 총 24개 국내 브랜드가 패션쇼 무대를 선보였으며 올해는 K팝스타 뉴진스가 홍보대사를 맡아 더 큰 관심을 끌었다.

01

01. 서울콘



특히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패션쇼를 한 달여 앞당겨 개최했는데 K패션에 대한 세계적인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세계 4대 패션위크(뉴욕, 파리, 밀라노, 런던)’보다 한발 앞서 다음 시즌의 패션 트렌드를 선보이며 해외 큰 손 바이어 관심을 높여줬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단연 돋보인 행사는 트레이드쇼. 쇼에 참여한 21개 브랜드를 포함한 68개 의류·신발·가방·주얼리 등 브랜드와 국내 디자이너 300여명이 글로벌 백화점 체인 하비 니콜스(Harvey Nichols) 등 23개국 101명의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직접 세일즈에 나섰다.

서울패션위크를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진출 가능성이 있는 K-패션 브랜드를 위한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앞으로 국내의 패션 업계에 영향력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제 이벤트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서울의 문화 예술 지평 확장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문화 발신국의 수도로 주목 받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K-컬처의 지평을 넓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자한다.

2024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바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성공적으로 이끈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얍 판 츠베덴’ 음악감독이 정식 취임한 것이다. 얍 판 츠베덴의 서울시향은 클래식 음악팬들의 관심을 받으며 2024년 시즌 전체 패키지 상품이 3시간 만에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피아니스트 임윤찬과의 협연으로 화제가 되었던 취임 연주회 〈얍 판 츠베덴의 새로운 시작〉은 1분 만에

01

01. 서울패션위크



매진이 되어 클래식 애호가들을 놀라게 했다.

압 판 츠베펜 감독은 앞으로 5년간 서울시향을 이끌게 된다. 앞으로 글로벌 오케스트라로 도약할 서울시향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8월에는 48년 만의 공공발레단인 '서울시 발레단'을 공식 창단한다. 국립발레단과 광주시립발레단에 이은 세 번째 공공발레단이자 국내 최초의 컨템포러리 공공 발레단이다.

우리나라 발레 무용수들이 '최초 · 최고 · 최연소'의 타이틀을 휩쓸면서 세계 무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발레의 저변이나 공공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에 서울시 발레단은 그 창단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 발레단'은 올해 4월 창단 사전 공연을 선보이며, 정식 창단 공연은 8월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칠 예정이다.

9월에는 서울에서 국제적인 미술축제가 열린다. 세계적 아트페어 '프리즈'와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가 함께하기로 한 5년의 장기적 여정이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다. '22년, 23년 키아프 · 프리즈 서울이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며, 서울은 세계미술시장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 <2024 아트위크(9.2~9.8)>를 개최하여 키아프 · 프리즈 서울을 찾은 전 세계미술 관계자와 애호가의 관람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 · 문화행사 등을 연계 개최하여 행사 기간 동안 서울 전역을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대한민국 역사 문화 중심공간「광화문광장」

서울은 역사의 도시이자 미래의 도시로 서울의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은 '2천년 역사 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어나가야 할 필수적인 사명이기도하다.

서울 도심 중심에 위치한 광화문광장은 오세훈 시장과 역사를 같이 한다고

지역정보

01

01. 서울시립교향악단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 시장 취임 첫해인 2006년 조성계획이 발표됐고, 2009년 8월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광화문광장이 처음 시민들에게 선보였을 때 '한국의 상젤리제'라 불리며 시민은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았다.

기존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민, 관광객의 호응도 높았지만 서울시는 역사문화광장의 가치를 더하고 시민휴식공간 역할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재구조화 추진했고 2022년 8월 다시 문을 열어 현재의 모습을 선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녹색과 역사를 중심으로 그려오던 서울 도심 공간 디자인의 화룡점정인 '월대복원'이라는 숙원해결로 역사성까지 강화된 새로운 광화문광장이 완성됐다. 월대 복원으로 북악산→경복궁→광화문→육조거리→덕수궁→승례문으로 이어지는 조선 600년 수도 한성의 역사성 복원과 한양 도성 중심축을 회복했고 광화문광장에서 쪽 뺨은 월대를 통과해서 걸으며 일직선으로 뺨은 경복궁 내 풍광을 감상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광화문광장은 역사적 의미와 깊이를 계승함과 동시에 시민, 관광객의 휴식과 산책은 물론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와 행사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 서울의 대표적인 매력 요소이자 명소다.

세계 최장 분수, 「반포 달빛무지개 분수」&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섬 「세빛섬」



반포 달빛무지개분수는 한강르네상스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2007년 6월 시작하여 2009년 4월 개막식을 통해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정적인 이미지에 웅장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담은 교량분수로 화려하게 탄생하였다.

서울 한강만이 가지고 있는 넓은 강폭(약700m) 전체를 연출하기 위해 반포대교 구간의 상 · 하류측 1,140m 구간에 낙하용 수중펌프를 이용하고 음악에 맞추어 물을 분사하여 연출한다. 200개의 조명이 색색의 아름다운 무지개빛 야경을 선사하는데 물줄기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시민들의 눈을 사로 잡는다.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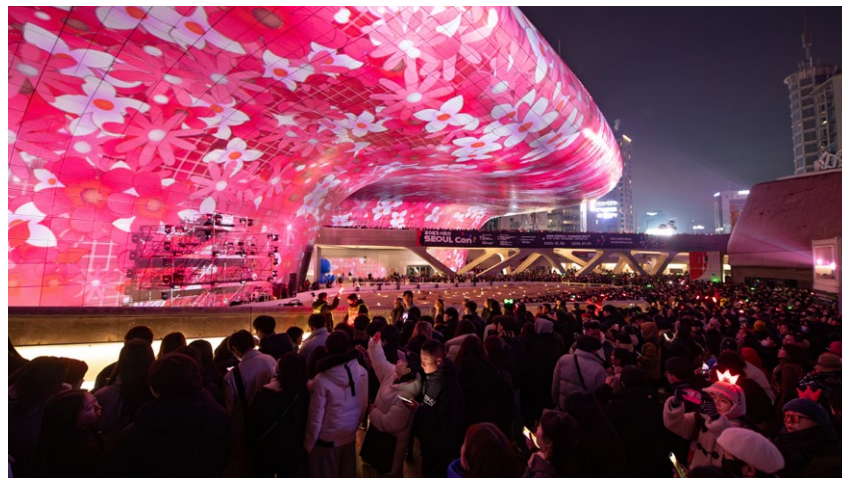
01. 광화문광장
02. 세빛섬

한강의 르네상스의 꽃 달빛무지개분수는 한강의 새로운 명소, 아름다운 음악과 풍경이 어우러진 사랑의 공간으로 새로운 생활문화가 창조되는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로 시민들의 가슴속에 새겨지고 있다.

반포 달빛무지개분수의 운영기간은 4월~10월(7, 8월 성수기)이며, 매일 5회(성수기에는 6회) 운영한다.

한강 반포대교 남단에는 세계 최초의 수상 컨벤션 시설인 '세빛섬'이 떠 있다. '세계의 빛나는 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세빛섬은 가빛섬, 채빛섬, 솔빛섬과 연계 시설인 미디어 아트 갤러리(전광판) 예빛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가빛섬 앞의 한강에서 수상 레저 어트랙션 '튜브스터'를 타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이뿐만 아니라 가빛섬에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카페, 레스토랑 등이 입점해 있어 낭만적인 시간도 누릴 수 있다. 밝고 화려한 즐거움이 가득한 채빛섬에는 수상 뷔페 레스토랑도 있어 기억에 남을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이 잠수교 패션쇼의 연회장소로 세빛섬을 선택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었다. 작년 한해에는 239만명이 방문하여 개장 이후 최대 방문객을 기록한데 힘입어 코로나19 불황을 이겨내고 4년만에 영업 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다.

예술의 아름다움과 창조적 기술의 만남, DDP 서울라이트 & DDP 45133



자하하디드가 설계한 DDP는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동대문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토대 위에 새로운 미래적 가치와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있다.

그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울라이트'는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하디드가 설계한 DDP의 외벽을 캔버스 삼아 펼쳐지는 초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축제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서울라이트'는 미구엘 슈발리에, 레픽 아나돌, 박제성 교수

01

0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와 협업하며 서울의 빛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미디어 콘텐츠로서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한국의 미디어 아트 트렌드를 발신하고 있다.

또한, 2023년 DDP는 외벽 패넬 수 45,133을 모티브로 NFT를 활용하여 DDP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DDP 45133'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스페셜 NFT 및 무료 에어드롭 NFT 9,300건을 자하 하디드 아키텍스와 협업하여 시범적으로 발행했다.

NFT 소지자에게 DDP와 관련된 전시, 행사 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DDP NFT를 활용하여 DDP 커뮤니티를 확대해나갈 예정으로 다양한 혜택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기획할 예정이다.

매력도시 서울의 라이프스타일, 「서울, 마이 소울 굿즈」 출시



서울의 새 브랜드인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서울 굿즈는 출시 초기임에도 상당 품목이 매진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단순히 서울을 상징하는 상품의 인기 차원을 넘어 서울의 문화체험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광화문 크리스마스 마켓에 처음으로 굿즈 판매숍을 연 데 이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상시 판매점을 오픈했다. 오 시장이 입은 후드티와 머그잔, 다이어리 등이 완판 행진을 이어 갔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굿즈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DDP디자인스토어 온라인몰에 굿즈 판매숍을 오픈했다.

더불어, 통상적인 굿즈 상품이 아닌 민간 콜라보를 통해 '서울의 맛' 서울라면을 개발·출시하는 등 새로운 시도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산물 홍보에 앞장선 사례는 많지만 이렇듯 식품을 직접 개발한 것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라면은 MZ의 핫플레이스 성수에서 2.1~4일 개최된 서울 브랜드 굿즈 팝업스토어에서 최초 공개되었는데 초도물량 5,000여 봉이 전부 소진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반응이 뜨거웠다.

현재 판매하는 상품 외에도 계절별 및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을 겨냥한 한정판 및 민간 협력을 통한 굿즈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01

01. 서울라이트

In search of Glocal Innovators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서울특별시 편

최수현(협의회 대학생 서포터즈 18기)

세계의 벽을 허무는 국경없는 여행,
관광테크의 중심에 있는
로드시스템 장양호 대표를 만나본다.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로드시스템



로드시스템(LORDSYSTEM)은 모바일 여권 기반의 관광·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15년 출발했다. 이 기업에서 개발한 '트립패스(Trip.PASS)'는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전자여권을 모바일로 구현하여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한 모바일 여권이다. 뿐만 아니라 결제 시스템까지 도입하여 결제 즉시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TAX FREE 결제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일상생활을 비롯해 국내 작은 지역축제부터 새만금 잼버리와 같은 범세계인의 축제에까지 사용되며 점차 사용 범위를 넓혀왔다. 2024년 1월에는 미국에서 개최된 CES2024에 참가해 디지털 보안 분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글로벌 관광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로 평가되어 최고혁신상(금융기술부문)과 혁신상(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부문)을 수상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로드시스템은 이 기술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등에 30개의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이로써 유일무이한 관광테크기업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다.

글로벌 관광 금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로드시스템의 장양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관광테크 기업의 시작

2013년, 장양호 대표는 처음 관광산업에 발을 들였다. 대한민국 관광의 봄이 이는 시점이었다. 국내 여행사의 SI시스템(정보시스템 통합)을 개발하는 업무였다. 업계의 시각에서 보니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항상 여권을 소지하고 다니며 신분 확인을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여권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장조사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들은 IT 인프라 대신 모바일 인프라가 선두로 발전하며 모바일 여권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관광객 누구나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모바일 여권의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마침내 로드시스템은 관광금융의 디지털 전환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왜 서울인가?



서울은 장양호 대표의 거점이었다. 거주하는 곳이다 보니 직접 접할 기회가 많았다. 또한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서울은 한류와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매력적인 도시이며 서울의 세계적인 교통 네트워크와 IT, 금융 등 인프라는 모바일

여권 플랫폼을 관광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하기에는 최적의 도시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서울시는 2027년까지 해외 관광객 3천만 명 유치를 선언하는 등 관광산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서울에서 관광 사업을 시작하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관광재단의 공모전에 도전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를 통해 서울경제진흥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R&D사업에 참여해 서울의 관광특구에서 외국인 대상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해마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에 도전하는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로드시스템은 지난 5년 동안 지원사업에 꾸준히 응모했고, 그 꾸준함으로 서바이벌의 승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장양호 대표는 “열심히 두드렸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이런 기회는 장을 만들어 준 서울시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얻기까지

로드시스템의 설립연도는 2015년이지만, 본격적인 사업은 2023년 7월에 시작됐다. 개인정보를 다루고 신분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존의 규제에 대항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약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바일 여권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규제샌드박스로 서울, 부산, 제주에서 모바일 여권으로 신원확인 절차를 대신할 수 있었고 올초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출처: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위기로 보였던 코로나라는 기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닥쳤다. 지역 간 이동이 금지되자 관광분야는 급격히 침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관광테크 기업인 로드시스템은 기술력을 통해 비대면의 확산이 기회가 되었다.

비대면 생활로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QR인증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이용되면서 로드시스템의 주요 사업인 모바일 여권의 사용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202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블록체인 기반의 신기술 비대면 보안 시범 사업(외국인

신원인증 분야)을 통해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정책 사각지대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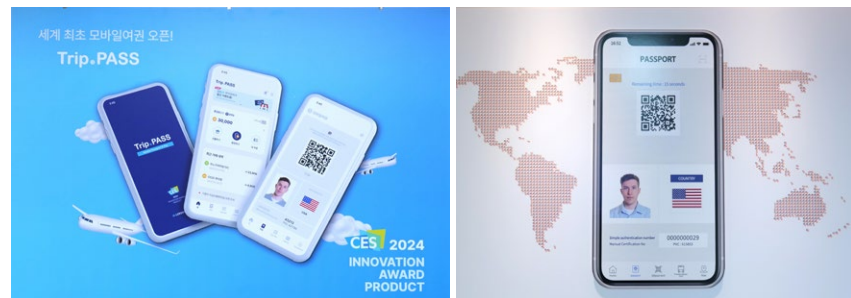
게다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19에 카지노, 면세 등의 산업분야에서는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엔테믹을 준비하였고, 정부 기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산업군의 디지털화를 강화하는 등 모바일 여권에 대한 시장의 니즈는 확대되어 갔다.



역경을 헤치고

아무도 시도 하지 않은 ‘모바일 여권 사업’이라는 원천기술 개발부터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를 만드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개발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통 역시 쉽지 않았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 신분인증 분야의 사업을 하기에는 신뢰확보가 중요했다. 여러 곳에서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지만, 기업의 규모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중국의 대표적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운영하는 텐센트와 제휴를 맺고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실증사업에 참여하며 신뢰를 확보해 나갔다.



국경없는 여행 (Borderless Travel)

2008년부터 전자여권 시스템이 도입되며 200여 개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전자여권은 모바일 여권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으로 IC칩 위변조의 안전성 부분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로드시스템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비대면 신기술 보안시범사업(외국인신원인증분야)에 참여해 인증을 받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초청으로 보안 기술의 최고를 선정하는 국제 보안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25개 참가국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덕분에 이 자리에서 네팔, 라오스, 우즈베키스탄의 정부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발판으로 로드시스템은 현재 해외 실증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23년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지원 공모를 통해 일본의 공동 사무실을 마련하고 가장 먼저 일본의 후쿠오카현의 벤처 마켓에 등록했고, 현지 PoC(Proof of Concept)를 진행할 수 있었다. 로드시스템은 올해를 해외사업의 원년으로 삼아 일본 사업에 집중하여 한국 관광객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의 관광수지를 우리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PoC(Proof of Concept)

어떤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프로세스 또는 프로젝트

(주)로드시스템만의 경쟁력

로드시스템은 CES에 올해 처음 참가해 최고혁신상(금융기술부문)과 혁신상(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부문)을 수상했다. 이에 장양호 대표는 “모바일 시대의 도래에 맞춰 모바일 여권에페이먼트를 결합하면서도 개인정보 보안이 보장되고, 간편히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혁신적이라 인정을 받은 것 같다. 세계 최대규모의 가전전시회에서 수상한 만큼, 수상 후 기술력과 비즈니스모델을 인정받아 전세계의 기업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덕분에 지금은 후속일을 바빠 처리하고 있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어 우리 사업에 대해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수상 후기를 전했다.



비전과 목표

로드시스템의 사업 비전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신분 인증망의 통합을 꿈꾼다. 2019년 기준으로 관광산업은 전세계 관광객이 14억 명이었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회복되고 있는 관광시장은 로드시스템의 전망이 되었다. 두 번째, 국경 없는 모바일결제를 추구한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카드사와 달리 소비자 부담인 결제 수수료를 배제하고 번거로운 환전 없이 결제를 가능케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써의 확장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올해 로드시스템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첫발을 내딛고 글로벌 결제망을 움직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월간지방시대 구독자들에게

끝으로 장양호 대표는 “로드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바일여권 솔루션(트립패스)을 지자체와 공유하여 지역의 관광특구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또한,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등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자체의 정책에 ‘트립패스’를 적용하여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고, 여기에 관광산업분야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싶다. 우리나라가 관광에 선도적인 국가로서 머물기 편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K-컬처가 전세계로 전파될 것이고, 국가적 위상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전하며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로드시스템이 관광산업에 K-위상을 세울 수 있길 소망했다.



In case of Glocalism in Japan



지방시대, 일본 편

협의회 일본사무소

공민연계 공영주택 재건축 사업
-오사카부 다이토시(大阪府大東市)

재정 부담 제로에 의한 공공주택 정비
-가고시마현 가노야시(鹿児島県鹿屋市)

공민연계 공영주택 재건축 사업 주택, 상업 등은 민간이 정비

공민연계로 <이것도 저것도>

다이토시는 오사카부 동부에 위치한 오사카 도시권의 신도시로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한편, 역사적으로는 <헤이세이(平成)초기에 걸친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사업의 증가>와 <두 번의 다이토 수해(1972, 1975년)>등의 영향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동시에 시민의식(시빅 프라이드)의 저하까지 이어졌다. 재정난은 공적정비를 둔화시켜, 마을의 존재감 부족과 시빅 프라이드의 저하는 마을의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된다.

공공시설 갱신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가운데 기존의 구조나 활력, 체제에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한정된 재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민 서비스를 서열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이토시가 해결책을 찾은 것이 자금 면이나 활력 면에서 뭐든지 실현할 수 있는 ‘공민연계’였다.

이와테현 시와정(岩手県 紫波町)의 <오겔 프로젝트>라는 공민연계의 선진사례를 따르면서 도시경영 과제를 탐구하고, 시 직원의 공민연계 프로페셔널 스쿨 파견(2015년~), 마을 만들기 회사 설립(2016년), 공민연계 기본계획 및 조례 등의 책정(2017년)을 차례로 실시했고 이러한 개혁 속에서 중심 프로젝트 중 하나가 <호쥬(北条)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전국 최초의 공민 연계에 의한 공영 주택 재건축 사업



그림1. <morineki> 모뉴먼트

호쥬 지역은 다이토시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 이곳에 존재했던 시영 이이모리엔(飯盛園) 제2주택(1965년대 건설 총 9, 합계 144호)이 노후화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재정난을 이유로 한 번 재건축 계획을 동결한 바 있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지역을 좋게 하고 싶다”라는 현지 주민의 뜻을 받아 이것을 재시동한 것이 호쥬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제 I 기 사업이며 전국 최초의 공민 제휴(PPP 에이전트) 수법에 의한 공영 주택 재건축 사업이 된 <morineki 프로젝트>이다.

‘morineki’란 정비지에서 가까운 이이모리(飯盛)산의 자연인 ‘모리(畠)’와 가와치(河内: 옛 오사카 동부)사투리인 ‘가까이’를 의미하는 ‘네끼’를 합친 합성어이다. morineki 프로젝트에서는 시 출자 마을 조성 회사인 다이토 공민 연계 마을 조성 사업 주식회사(현·(주)코민)가 참가하여 SPC(특별목적회사)인 토신주식회사와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자금조달을 실시하는 것으로 공적 부담을 억제하면서, 행정에는 없는 자유로운 발상을 살린 지역 디자인을 구축했다. 한편, 행정적인 부분은 규제 완화와 인프라 정비를 통해 적극적인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주변 공원과 도로 등을 포함한 지역 일대의 재생을 가능하게 했다.

morineki 프로젝트의 주된 특징으로서는, ①가리아게(借上げ: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물건을 빌림) 시영 주택이라고 하는 구조, ②주택만이 아닌 정비, ③지역 디자인의 통일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공민의 신뢰관계로 <장점만 살린 마을 만들기>

전국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공영주택 수요 저하에 비추어 빈집 보유 위험 회피나 정비·관리 비용 절감, 유연한 활용 가능성 창출을 목적으로 당시 입주자 수를 기반으로 한 74채를 모두 민간주택으로 정비하고 시가 임차해 시영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했다. 이에 따라 언젠가 수요가 없어지면 민간 주택으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해져 활용 가능한 잉여지도 생겼다.

공민 연계의 관점에서 보면 재건축 사업이 주택 정비만으로 끝나 버리면 민간 사업자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없고, 새로운 마을의 팬 유입 및 인구 교류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 그리하여 컴팩트한 정비에 의해 발생한 잉여지를 이용해 점포가 있는 상가건물을 정비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공원이나 도로 공간, 친수 공간은 행정이, 주택이나 상가 등은 민간이 각각 정비를 실시하는 가운데 민간 사업자로부터의 제안을 바탕으로 같은 비전이나 지역 디자인을 그리는 것을 통해 각 기능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풍부한 자연을 살린 매력 있는 랜드 스케이프의 형성을 실현했다. 여기에서는 도로를 사이에 둔 도시공원구역의 설정 등에 대해서 행정이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림2. 공민연계 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morineki>의 전체 모습

이처럼 행정은 민간을, 민간은 행정을 신뢰하고 손을 맞잡음으로써 <장점만 살린 마을 만들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사업이 가져다 준 효과

morineki 프로젝트 실시에 있어 책정한 도시재생정비계획의 각 수치목표와 정비 후 수치는 표 1, 2와 같다. 계획구역 내 인구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었지만 당초에는 감소하던 구역 내 인구가 사업 시작 후인 2021년 3월부터는 증가로 돌아서 0~14세 인구가 사업 전에 비해 증가했다.

목표치를 달성한 두 개의 항목에서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정기적인 이벤트가 시 내외 팬의 증가나 지역과의 융화로 이어져, 활기가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와 더불어 2022년 실시된 시영주택의 주민이나 상가동의 방문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대상자 중 70% 이상으로부터 morineki지역의 활기나 마을 풍경 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정비 후 주변의 상속세 노선가(路線価: (일본) 국세청이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 기준으로 하기 위해 정한, 시가지의 도로에 면한 토지의 평가액)가 상승하는 등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했다.

<점>에서 <면>으로 퍼져 나가는 공민연계의 마을 만들기

이번 공민 연계에 의한 마을 만들기에서는 파트너가 되는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행정은 행정이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하여, 공원이나 도로 등의 정비를 일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마을 풍경이나 인상이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morineki 지역이라는 <점>에서 호조 지역을 비롯한 주변 지역, 즉 <면>으로 더욱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현재 다이토시에서는 <호조 지역 마을 만들기 제Ⅱ기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마을 만들기 비전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에 잔존하는 노후화된 시영주택이나 공공시설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확실한 판별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공민 연계에 의해 <마을>과 <마을을 이용하는 사람> 양쪽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다이토시(大東市)의 마을 만들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単位)	従前(H29)	目標値	実績(R4)
計画区域内人口 (人)	2,227	2,227	2,081
緑地公園の利用者数 (人/日)	30	60	162
緑地公園で実施するイベント等の来訪者数 (人/年)	0	1,000	6,009

※イベント来訪者数についてはR4.7.23~24開催の「fair (フェア)夏祭り」の来訪者数を測定したもので、morinekiでは毎月イベントが開催されているため、過年度より多くの来訪者数があったと考えます。

표1. 도시재생 정비계획에서의 수치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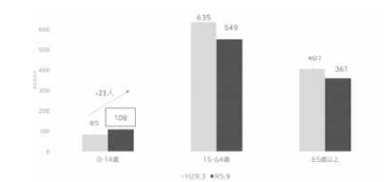


표2. 정비계획에서의 호조지역 연령별 인구비교

재정 부담 제로에 의한 공공주택 정비 사쿠라가오카 육아지원주택 <허그 테라스>의 정비

가노야시의 현황

가노야시는 가고시마(鹿児島)만을 사이에 두고 가고시마시의 강 건너에 해당하는 오스미(大隅)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2021년도의 시정촌별 농업 산출액에서는 시정촌 중에서 전국 9위, 그 중에서도 육용우(肉用牛) 부문은 동 2위의 산출액을 자랑하는 축산업이나 농작물을 중심으로 한 제1차 산업이 활발한 지역이다.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이 일반주택, 임대주택, 공공주택 모두에서 확대되고 있어 그 대책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재정난으로 재건축이 동결, 「0계 PPP/PFI」로 해결 나서

이번 <사쿠라가오카 육아 지원 주택 정비 PFI 사업>의 사업 장소에서는 원래 공영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서 건설 후 40년 이상 경과한 사쿠라가오카 단지의 기존 연립 주택 24동 123호를 3기로 나누어 3동 126호로 재건축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업 도중 2기 완성 후 시의 재정난을 이유로 3기 재건축(1동 41호)이 중단되었고 그 영향으로 재건축 예정지가 수년간에 걸쳐 유휴화 되고 있었다.

3기 재건축 예정지의 주변 환경은 상점과 은행, 공공시설이 즐비한 간선도로변으로,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가깝고 큰 공원도 앞에 있는 등 공동주택과 점포, 사무소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높은 지구였기 때문에 토지의 유효 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정난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공민 연계에 의한 「PPP/PFI」 기법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때문에 많은 강습회 등의 참가나 선진지 시찰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PFI법에 의한 공민 연계 사업의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시키는 가운데, 어느 강습회의 강사가 설명하고 있던 지역 우량 임대 주택 건설에 의한 「0계 PPP/PFI(注)」¹⁾가 당시의 재건축 사업을 재개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 했다. 검토 결과, 가노야시의 저출산이나 빈집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시책으로서 육아 환경의 충실과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이가 다 자란 뒤에도 지역 정주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역 우량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육아 지원 주택과 그 특징

육아 지원 주택 <허그·테라스>에 대해서는 PFI(BTO) 방식으로 시설정비와 관련되는 비용 중 국가의 보조금(1/2)에 상당하는 금액은 건물 구입 후에 일괄로 지불하고, 그 이외의 시설 정비비와



그림1. <허그·테라스>의 외관

1) 「0계 PPP/PFI」란, 건설비와 지정 관리료를 보조금과 매년의 집세로 장기로 할부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제로 또는 한없이 제로에 가까운 수치로, PPP/PFI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생각

관련되는 비용과 유지 관리와 관련되는 비용은 사업 기간 중(30년간)에 평준화해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매년 지불하는 비용(정비비, 유지 관리비)의 재원은 주택의 집세(약 90%)와 민간 시설의 토지 임대료 등으로 조달하고 사업 기간 중의 지자체 부담이 제로가 되는 사업 계획을 구축해 실천하고 있다.



그림2. 〈허그·테라스〉의민간수익시설

애프터스쿨과 맘 카페

민간수익시설(애프터스쿨과 맘 카페)의 도입에 대해서는 민간의 발상이나 창 의 연구에 의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 어댑티드 스포츠 카노야〉는 모체가 수영클럽 등을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는 새로운 대안로서 전국에서도 별로 사례가 없는



그림3. 애프터스쿨의 모습

〈스포츠〉×「학문」양립 시스템을 도입하여 새로운 학동(學童) 시설 운영을 실시해, 송영(送迎)이나 학원비용에 드는 보호자의 부담 경감도 도모하고 있다(注). 또한 공공에 의지하지 않는 새로운 방과 후 학동 시설로 운영하고 있어, 민간수익 시설의 복지 관계자가 견학도 많이 하는 곳이다. (注)스포츠는 수영, 축구, 체조, 가라테 등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학문은 숙제 외에 주판, 붓글씨, 영어회화, 각켄교실(학습보조)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업개시 후 성과

2018년 3월 입주 개시부터 2023년 10월까지 6년 8개월까지의 허그 테라스에서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허그 테라스의 어린이 인원수

(1) 전체 어린이 수 = 64명 → 73명

(2) 가구당 자녀 수 = 1.6명 → 1.82명

(3) 어린이 평균 연령 = 5.9세 → 10.5세

이상의 숫자로 보아 꾸준히 둘째, 셋째 아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그 테라스에서의 잉여금

입주율이 90%이고 연간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기에 그 이상의

입주율이 있는 경우의 잉여금이나 민간수익시설로부터의 토지임대료 수입 등에 대해서는 매년 기금에 쌓아 사업기간 도중의 대규모 정비에 충당할 예정이며,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적립액은 16,611,000엔이다.

향후 과제와 전망

하드 면에서의 육아 지원 주택과 민간 수익 시설은 완성되었지만, 향후는 보다 중요한 소프트 면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신종 코로나로 중단된 아이와 부모 대상의 행사(할로윈, 크리스마스, 바자회 등)의 재개 등 신규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입주민과 지역 주민의 교류 장소 제공을 도모해 가는 것이 과제이다. 또한 30년간의 장기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현황정보 공유가 이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3개월에 한 번씩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 쌍방으로 의견을 나누며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높은 입주율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가노야시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단지의 재건축이나 개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공민 연계를 활용한 지역 우량 임대주택(注)²⁾의 도입은 그 해결 수단의 하나로서 큰 가능성이 있다.

전례에 구애 받지 않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가지고 각각의 지자체에서 과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림4. 코인 세탁소



그림5. 로고마크

〈사진출처〉

-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s://www.mlit.go.jp/toshi/townscape/toshi_townscape_tk_000022.html)
- 가고시마현 홈페이지(<https://www.city.kanoya.lg.jp/jyukanri/kurashi/tochi/koe/nyukyo.html>)

²⁾ 입주자격은 자녀양육가구, 신혼세대, 고령자 세대, 장애인 등 세대에 해당하는 분으로 세대 월수입 · 7만 엔 이하의 공공 주택 대상 저소득자층과 중견소득자층이다.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

박관규 센터장(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이우정 연구위원(협의회 정책연구센터)

2024년 중앙정부 정책방향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Ⅱ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II 개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부처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17회의 민생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호에서 9차례의 민생토론회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번 호에는 10회부터 17회까지 전국 8개 시도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며, 이들은 앞으로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이 2024년 부처 업무보고의 형식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3월 5일까지 17회 개최하였다. 「월간 지방시대」 지난 호에서 앞선 9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번 호에는 10회부터 17회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지난 8차례의 민생토론회 일정과 주제는 다음 표와 같다. 부처 업무보고와 지역발전정책의 발표와 현장 의견수렴을 겸하는 성격으로 확대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표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제와 일정

회차	날짜	지역	주제	비고
10	2.08(목)	서울	함께 뛰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11	2.13(화)	부산	부산이 활짝여는 지방시대	
12	2.16(금)	대전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13	2.21(수)	울산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14	2.22(목)	경남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 · 경남	
15	2.26(월)	충남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	
16	3.04(월)	대구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17	3.05(화)	경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II 주요 내용

함께 뛰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제10회 민생토론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9개 부처가 참여하였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통령은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먼저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1명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 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도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반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킨다.

또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을 하려면 유압 프레스기 등 장비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빌리거나 공유할 때에도 가능하도록 영업 기준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한다.

또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 6,000억 원을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F와 같은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서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든다.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11번째 민생토론회는 부산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부산지역의 발전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과거에 제시한 정책의 추진을 다짐하였다.

작년 9월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였음을 언급하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학교 모델을 마련하면 규제 특례와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도심의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집약해서 청년과 기업을 모으는 도심융합특구,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 지능을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기반하여 올해에는 국민들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하고, 부산지역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기 위해 2029년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을 탈바꿈시키기 위해 해운대구에 조성 중인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산업과 일자리만으로 부족한 지역 정주여건 등의 강화를 위해 교육, 의료, 문화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

대전에서 진행된 12번째 민생토론회는 과학기술을 어젠다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과학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먼저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 원을 빠짐없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에게도 대통령과학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출연연구기관 시스템을 혁신한다. 2023년 11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화학연구원장의 건의에 기반하여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며, 정원과 총액인건비 제한과 같은 규제를 이미 풀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대통령 선거에 유성구와 서구 일부 지역(160만 평)에 제2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였음을 지적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로도 지정해서 세제 혜택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진행한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대전의 과학기술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인다는 정책의지도 표명하였다. 먼저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 기능, 청주의 바이오 반도체 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도권과 같은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음을 다시 밝혔다. 즉 대전, 세종, 청주 CTX 사업이 그러한 사업이라고 하였다.

한편 대전을 교통의 요지로 만들었던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지금은 대전을 동서로 단절하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부선 신대동~옥천 구간, 호남선 오정동~가수원 구간 철도를 조속히 지하화하고 상부는 상업, 주거 문화가 융합된 공간으로 바뀌 나간다는 점을 밝혔다.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1962년 1월,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별법이 제정되고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60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써 산업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자동차, 조선 및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선두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 울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금 울산의 고민과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고민은 동일하다.

정부는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고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했고,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서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산업과 신산업이 자리 잡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의 제한을 풀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여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토지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과거에 정비되고 지정된 그린벨트를 상황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정리한다는 점도 밝혔다. 도시 외곽에 자리 잡아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울산과 울주의 한가운대를 가로지르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와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별 그린벨트의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입지공간을 공급한다.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이용 규제를 혁신하고, 스마트 팜이나 수직 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다. 산단, 택지, 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울산도 2천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다.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경남 창원은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핵심기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또 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하였고, 1969년에는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원전산업의 토대가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계의 산업구조가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가 원전 1기 생산하는 1.3기가와트의 전력을 소비한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고품질 전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원전은 필요하며, 그것이 없으면 첨단산업 발전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원은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원전 국산화를 선도하며 우리 원전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그래서 원전산업의 부흥을 위해 신한울 3호기와 4호기의 건설을 재개했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운전 절차도 다시 개시하였다. 또한 우리의 원전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1년 반 만에 4조 원의 수주를 달성했음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다. 먼저 3조 3천억 원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여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자력 R&D를 복원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노후화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뀌 나갈 것임을 밝혔다. 경직적인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산업단지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과 같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신산업과 법률, 회계, 금융 등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산업이 산단에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확실적인 업종 제한도 풀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산업단지를 보다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것이며,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 원 이상의 지역 전략산업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흐름에서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거제에서 먼저 추진할 것이며, 기업이 토지를 수용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점을 밝혔다.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

충남은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첨단국가산업단지, 국방산업 클러스터, 국립치의학연구원 등을 충남에서 추진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서산지역에 공항을 건설하도록 2024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공군 활주로를 민간 활주로로 활용해서 2028년까지 민간공항 문을 여는 계획이다. 서산 민간공항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흩어져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 또는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정책의지를 강조하였다. 이에 민군이 협력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 모델을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작년 3월 정부에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다. 충남에는 천안, 홍성 두 곳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방산업 특화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올해 1월 국방특화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내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서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이다. 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서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에 세울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 차량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 입주하는 복합단지를 개발하여 9조 6천억원 규모의 경제파급효과와 3만2천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고, 재정지원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2025년부터 태안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역을 지정해서 외국 첨단기술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대구에는 과거 경북도청 소재지로서 구미의 전자산업, 포항의 제철산업을 아우르며 우리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섬유산업은 가장 선두에서 우리나라 수출 길을 열었던 효자 산업이었다. 1987년 단일 산업 최초로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산업이 바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섬유산업이었다.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도 대구시 인교동의 국수 공장에서 기업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대구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지만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혁신해야 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도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점을 표명하였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든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공항 추진 계획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하며,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K-2 공항 이전 부지의 개발에도 정부 차원에서 더욱 지원한다. 그동안 소음 피해 등으로 낙후된 기존 공항 부지를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교통이 결합된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구 도심의 군부대 이전도 금년 내 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아울러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대구가 AI와 빅데이터 R&D 전진기지로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작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에 2천억을 투입하고, 대구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기계, 금속, 부품 산업을 토대로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가 대구의 산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고, 수성 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해서 제조업과 디지털의 융합을 이끄는 R&D 핵심 거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8천억 원 규모로 건립 예정인 SK 수성 알파시티 AI 데이터센터에서 AI 관련 대형 R&D 과제들이 연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구를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얼마 전 대구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대구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대구 미래 산업을 키울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 인재들이 대구에서 일하며 대구·경북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다. 동성로 일대에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국립뮤지컬컴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한다. 먼저 팔공산 국립공원에 1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고품격 생태탐방 코스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명품 국립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대구를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시키고, 애국도시 대구의 상징이 될 국립국악운동기념관을 서문시장 인근에 건립하며,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서 일어났던 대구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구 시민들의 불편 중의 하나인 염색산단, 매립장, 하수처리장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의대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 의과대학이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다.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청년에 초점을 둔 민생토론회는 정부의 13개 부처가 함께하였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한 것을 밝히는 중요한 토론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을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이라고 말했다. K-팝의 BTS와 블랙핑크, 축구의 손흥민 선수와 야구의 김하성 선수, 또 e스포츠의 패이커 이상혁 선수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에 올라선 청년들이 매우 많으므로, 지금의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뛰어난 청년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는 점을 밝혔다.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청년이 존재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해야 하며 집행과정에 더욱 많은 청년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인턴제도를 도입해서 국정에 참여하며 일하는 경험을 쌓도록 했고, 인원을 2,000명에서 5,000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 전체의 미래도 열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200만 명의 대학생 가운데 150만 명이 장학금을 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또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2만 명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2025년에는 20만 명까지 확대할 것이다.

또 주거장학금을 신설해서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며,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늘릴 것이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왔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서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다.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 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왔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세계 각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길 것이다. 경제적 이유로 운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청년세대의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이다.

〈참고자료〉

- 대통령실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2024.2.8.
- 대통령실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2024.2.13.
- 대통령실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2024.2.18.
- 대통령실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2024.2.21.
- 대통령실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2024.2.22.
- 대통령실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2024.2.26.
- 대통령실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2024.3.4.
- 대통령실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2024.3.5.

〈사진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편집후기

월간 지방시대는 시도지사가 생각하는 지방시대란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며, 지방시대를 위해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례 및 지방시대의 토대를 닦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인물을 찾아 소개한다. 또한 타 국가의 최신 정보 및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정책동향을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있다.

2024년 3월호는 '서울특별시' 편으로 구성, 제작되었다.

『시도지사의 지방시대 칼럼』은 서울특별시장의 지방시대에 대한 철학과 고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 서울의 핵심 매력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新정비방식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서울특별시 주요정보』에서는 서울야외도서관, 서울윈터페스타, 서울패션위크, 광화문광장 등과 '서울, 마이 소울 굿즈' 출시 및 서울시의 문화 예술에 대해 홍보하고,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는 모바일여권을 기반으로 핀테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로드시스템 장양호 대표를 인터뷰 하였다.

『지방시대 해외정보』는 일본 오사카의 공민연계 공영주택 재건축 사업, 가고시마현의 재정 부담 제로에 의한 공공주택 정비에 대한 정보를 실는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II”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월간 지방시대는 시도지사와 시도의 홍보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매월 특정시도의 특별판으로 기획되어 시도, 국회, 중앙정부, 국민 등에게 제공된다.

2024년 4월호는 부터는 새롭게 개편된 '지방시대 매거진' 제주특별자치도편으로 제작된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발행일 2024년 3월 11일(제115호)

발행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박형준 | 편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미디어부

주소 0318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 문의 02-2170-6092